

회원대학 소식

대학교육

뉴스레이더

Higher Education 2011_05+06

| 연세대학교 |

세계적인 교육·연구 허브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3월 2일 본격 개교했다. 18만 6천 평 부지에 건립된 국제캠퍼스는 2011학년도 1학기 부분 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2013년 전면 개교할 예정이다. 2011학년도에 국제캠퍼스에 입학하는 첫 신입생은 공과대 글로벌융합공학부 16명, 공과대 글로벌융합 대학원 22명 UIC 145명, 자유전공 102명, 의예과 66명, 치의예과 33명, 약학대 26명, 외국인 글로벌학부 19명으로 총 429명이다. 이중 공과대 글로벌융합공 학부와 글로벌융합대학원 그리고 약학대 학생들은 졸업까지 국제캠퍼스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외 UIC, 자유전공, 의예과, 치의예과, 외국인 글로벌학부 학생들은 1학년을 국제캠퍼스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재학 기간은 신촌캠퍼스에서 보내게 된다. 국제캠퍼스에서는 영어 몰입교육을 위해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채플 또한 신촌캠에서 진행되는 영어 채플을 실시간 화상으로 전송해 이뤄진다. 더불어 레지덴셜칼리지 제도(RC 제도)를 시행해 기숙사 생활과 학업 생활이 하나가 되는 캠퍼스를 지향한다. RC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외국어, 학술 등 기숙사내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한편 국제캠퍼스는 총 2단계에 걸쳐 완공된다. 현재 국제캠퍼스에는 1단계 캠퍼스가 완공돼 과학기술약학관 인문사회관 기숙사, 종합관, 도서관 등 총 9개의 건물이 들어섰다. 지난 2월부터 세브란스

국제병원과 종합강의건물 4동 건설을 포함한 2단계 캠퍼스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지난 2월 말 학생들이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숙사에 입사했으며 과학기술약학관과 인문사회관에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종합관에는 각종 행정본부와 실내체육관, 보건센터 등이 들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돕는다.

| 전주대학교 |

전주대학교는 캐나다 캘거리대학 공과대학과 2월 23일(수) 오전 9시 캐나다 캘거리대학 총장 접견실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본교 공학기술종합연구소 탄소연구소와 캘거리대학 공과대학 Schulich School 양 기관이 탄소나노기술에 대한 학술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탄소연구소 개설 및 국제공동연구 개발 등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하였다. 또한 캐나다 관련 대학의 현황을 파악하여 캐나다와 교류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향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탄소나노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발판으로 활용하며, 연구 활동을 위해 인적/기술 교류, R&D 공동개발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건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국간 기술, 인적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공학기술종합연구소가 국제화, 세계화로 발돋움 하는 기틀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소는 3월 25일 본교 중앙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아시아 이주현황과 다문화주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필리핀의 스칼라브리니 이주센터(Scalabrini Migration Center이하 SMC)의 그라치아노(Graziano Battistella) 소장이 SMC의 역사, 지향, 연구 및 다문화주의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명현 소장이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가졌으며, 토론에는 김용찬 교수(국제행정학과)와 권복순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참가했다. SMC는 이탈리아 이주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800년대 말에 출범해 100여 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이주민의 권리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주에 관한 학제 간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연구소는 “이번 세미나가 정주 외국인이 급격히 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아직까지 이주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경산시의 사랑나눔청년사업단과 대구의 동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는 4월 5일(화) 오후 2시 30분에 본교 행정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한국DB진흥원)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

DB진흥원이 산학 DB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지원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여자대학교로서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처음이다. 본 협약을 통해 서울여자대학교는 한국DB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육 커리큘럼, 교안, 실습자료,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받게 되고, (주)엔코아와 (주)알티베이스로부터 약 10억여원 상당의 S/W를 기증받게 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서울여자대학교 DB교육 커리큘럼, 실습자료 등 교보재 지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등 대상별 맞춤형 DB교육 지원,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 DB전문 자격취득 및 졸업생 취업 지원, 기타 DB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이다.

| 조선대학교 |

조선대학교가 올해 창의적 글로벌 문화리더(CU리더) 양성을 위한 CU-SP 시스템과 문화마일리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조선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특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창의적 글로벌 문화리더’를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자기관리 차원에서 onvergence(융합역량), Creativity(창의적역량), Care(배려역량), 공동체 차원에서 Communication(의사소통역량), Cosmopolitan(글로벌역량), Community-leadership(리더십역량)을 두루 갖춘 CU리더 양성을 위해 CU-SP 시스템과 문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한다. 문화마일리지 제도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이 능동적으로 광범위한 문화의 향유, 공유, 창조 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서 축적된 역량에 대해 일정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과하여 문화탐방 및 장학

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학이 지향하는 창의적 글로벌 문화리더 양성을 위해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핵심소양, 봉사, 독서, 취업, 국제화, 자기관리 등 6영역으로 나눠 학생들이 창의적, 자발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CU-SP(Student Portfolio) 시스템에 저장하면 개별마일리지 부여하여 총괄점수를 기준으로 문화마일리지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문화리더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탁월한 학생에게는 ‘문화리더 챔피언’ 인증서를 수여한다. 조선대학교는 문화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탐방을 다녀온 학생 18명을 문화마일리지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대학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이끌어 가게 된다.

| 명지대학교 |

미국 Northern State University(이하 NSU) 총장 일행이 3월 11일(금) 오전 10시 명지대학교를 방문했다. NSU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교환학생 및 졸업을 마친 한국 학생, 기타 관계자들을 위한 한국 리셉션을 개최하기 위해 것으로, 대표단은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자매대학도 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Dr. James Smith, NSU 총장을 비롯한 6명의 실무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전 10시 인문캠퍼스 행정동 3층 총장실에서 유병진 총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으며, 10시 30분부터 1시간여에 걸쳐 방목학술

정보관 견학 및 학교 홍보 영상 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병진 총장과 Dr. James Smith 총장은 앞으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원활한 전개로 양교의 우호관계가 지속되는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NSU대표단 방문이 양교의 우호적 관계 발전에 기여해, 세계로 나아가는 명지대학교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위상도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 안동대학교 |

최근 대학생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동대는 지난해부터 교수업적 평가에 학생면담 실적을 반영해 학생들의 개인별 상담을 돕고 있다. 교수업적 평가의 교육활동 영역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학생지도를 추가 하였으며 이를 다시 면담지도 및 학생활동지도로 세분하여 각각 1회당 0.1점, 1건당 1점씩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체계적인 학생관리와 멘토링 역할을 통해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과 밀착형 지도를 하기 위함이다. 특히, 면담지도는 ‘학생경력관리프로그램’에 기록되고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경력관리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부터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든 경력사항 및 취업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해 도입해 실시하다가 작년부터 학생상담 시스템을 추가하여 시행,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과학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대가 추진한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경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점수화하고 기업체 추천, 구직 알선, 해외 인턴십, 우수학과 선정, 교내외 장학생 선발 및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수님과 시스템 상 스케줄 예약

후 직접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신청 코너를 통해 생과 교수 간 진로와 취업, 진학, 생활상담 등 양방향 소통 상담이 가능토록 하고, 상담 내역을 개인별 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안동대는 최근 '학생경력관리프로그램'내에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목표관리시스템(MSP; My Successs Plan, 이하 'MSP')'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MSP는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생활 실천 roadmap' 설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에게는 개인의 능력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수들은 학생MSP 추진과정 및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한 상담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재 MSP에는 취업을 앞둔 4학년뿐만 아니라 안동대 전체 대학생의 47%에 달하는 3,320명이 등록되어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한밭대학교 |

한밭대학교는 4월 12일 오전 11시 대학 내 복지후생관 2층에서 재학생의 취업 상담 및 구직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밭대학교 대학청년고용센터」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한밭대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2011년도 대학청년고용센터(잡영 플라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번 개소식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주)사람인 HR의 취업 전문 컨설턴트 3명이 독립된 상담실에서 Full time으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취업상담과 구직알선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한밭대는 취업전문가로부터 재학기간동안 취업준비는 물론 취업선택까지 이루어지는 최상의 취업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한편, 한밭대는 이번 대학청년고용센터 유치로 취업상담 및 구직알선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취업활성화는 물론 취업의 질을 높여 올해 취업통계조사에서 지난 6년간 취업률 최상위 대학이라는 「취업률 전국 1위, 취업 명문대학」이라는 입지를 계속하여 굳혀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밭대는 지난 3월부터 입학에서 졸업까지 취업환경이 요구하는 경력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프로그램인 「학생경력관리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된 기업에서 인정받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회원 대학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 회원대학 소식게재 신청 : research@kcue.or.kr

기사를 보내주시면 회원대학 소식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육 홈페이지 주소 : <http://magazine.kcue.or.kr>

대학교육에서 고등교육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 대학소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 홈페이지 - '지난호 보기' 메뉴에서 지난 대학교육 원고 및 기사를 pdf와 e-book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